

Application of Jewish Havruta Methods to Christian Education

Jang Heum Ok
(Hanshin University)

Abstract

Research Purpose : To seek ways to apply Havruta, an educational method for learning Torah as a guideline for Jewish life, to Christian education, so that Christians can apply it to their daily lives.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 The contents of the study to apply the Jewish Havruta educational method to Christian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of Havruta education was analyzed by categorizing it into guidelines for Torah interpretation, guidelines for teaching, and methods of Torah education. Second, the Havruta educational method was analyzed by categorizing it into the concept of Havruta education, the Havruta educational model into the purpose of Havruta education, the content of Havruta education, and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Havruta. Third, the educational methods for applying the Jewish Havruta educational method to Christian education were categorized into education through reading and memorization, cooperative learning for Christian education, problem-centered learning for Christian education, discussion learning for Christian education, and creativity development for Christian education, and set as the research contents.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The ways to apply the Jewish Havruta educational method to Christian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applied as an educational method through reading and memorization. Second, it can be applied as cooperative learning for Christian education. Third, it can be used as problem-centered learning for Christian education. Fourth, it can be used as discussion learning for Christian education. Fifth, it can be used as education for creativity development for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Oral Torah, Written Torah, Mishnah, Gemara, Talmud, Havrut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Hanshin University Research Grant.

Received August 22, 2024 Revised September 28, 2024 Accepted September 29, 2024

Author : Jang Heum Ok,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okjh@hs.ac.kr

유대교 하브루타 교육 방법의 기독교 교육 적용 방안*

옥장흠**
(한신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으로 토라를 학습하기 위한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를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유대교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기독교 교육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브루타 교육의 배경을 토라 해석의 지침과 가르치기 위한 지침, 토라교육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하브루타 교육의 개념, 하브루타 교육모형을 하브루타 교육 목적, 하브루타 교육의 내용, 하브루타의 교수-학습 과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독서와 암송을 통한 교육,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창의성 개발을 교육 등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유대교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와 암송을 통한 교육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으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창의성 개발을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구전 토라, 성문 토라, 미쉬나, 게마라, 탈무드, 하브루타

□ 2024년 8월 22일 접수, 2024년 9월 28일 심사완료, 2024년 9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okjh@hs.ac.kr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가 2019년 12월에 발생하여 2023년 5월부터 심각 단계에서 해제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대에 실추되었던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19 이전의 교회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정착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복음에서 벗어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윤웅진, 2010, 400-401). 또한 기독교 교육도 종전의 죽음 이후의 영혼 구원과 개인주의적이고 탐욕적인 신앙을 전수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숙한 기독교 민주시민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보람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고, 물질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인류를 위기로 몰아가는 생태계의 파괴, 전쟁 등의 위협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는 형태의 사회변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윤웅진, 2000, 32-40).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것은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이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삶이 올바른 삶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교육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김정준, 2024, 25).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에서 찾고자 한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앗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 당하고, 기원전 587년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으며, 기원후 70년 로마에게 멸망 당함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종교적인 행위가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잊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편집하여 일상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하여 그들의 백성들을 가르쳤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하기 위해서 유대인 모두 이 토라의 말씀을 외우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배울 수 있는 공간과 가르칠 교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찾아낸 것이 하브루타 교육이다. 이 하브루타 교육방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신앙교육의 지침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다. 최근 들어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으로 신앙교육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 방법 중의 하나인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새로운 기독교 교육 방법의 대안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으로 토라를 학습하기 위한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를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하브루타 교육의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분석한다. 셋째, 하브루타 교육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II. 하브루타 교육의 배경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하브루타 교육의 배경을 토라 교육의 배경, 토라 해석의 지침과 가르치기 위한 지침, 토라교육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토라 교육의 배경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토라(Torah)를 경전으로 하고 있다. 이 토라는 쓰여진 토라인 성문 토라(Written Torah)와 구전 토라(Oral Torah)로 나누어져 있다. 성문 토라는 히브리 성서(Tanakh, 구약성서)로서 성문 율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전 토라는 미쉬나(Mishina)로서 구전 전승 되어온 구전 율법이다. 또한 탈무드(Talmud)는 구전 전승된 토라(Torah)인 미쉬나(Mishina)와 랍비 유대교의 랍비들에 의해서 미쉬나의 토론들의 모음집(주석서)인 게마라(Gemara)로 구성되어 있다. 미쉬나의 의미는 ‘반복하다’는 히브리어 동사 샤나(shana)에서 유래하였다(Neusner, 1984, 28). 이러한 미쉬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들이 제1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Zugot, B.C. 515-A.D.70)를 거쳐 약 500년 동안 구전되어 오던 율법들을 타나임 시대(Tanaim, A.D. 70-200)의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A.D.70년경 힐렐(Rabbi Hillel)에 의해 처음으로 편집되었다(Neusner, 1973, 4). 미쉬나의 편집은 로마에 대항하여 ‘바르 코크바 반란’(The Bar Kokhba Revolt)의 실패로 인하여 20-30명의 랍비들만 이 전쟁에서 살아 남게 되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구전 전승해 왔던 구전 율법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 랍비 예후다 하-나씨(Judah Ha-Nasi)가 자신의 고향인 썬 샤아림으로 산헤드린을 옮기고 그곳에서 떠돌아다니던 구전 율법을 한곳에 모으는 작업에 착수하여 기원후 200년경에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하게 되었다(최중화, 2019, 133-134). 로마군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등의 많은 건물을 파괴시켰다. 그리고 이 항쟁에 참여했던 모든 반란군을 처형시켰으며,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다(조철수, 2002, 31). 이로 인해 성전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거룩한 성소의 그림자’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성전의 일부 기능은 회당이 담당하였다. 율법을 연구하며 가르치던 회

당은 예배의 기능까지 흡수하게 되면서 유대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갔다(최창모, 1994, 209). 그러므로 A.D.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성전의 파괴로 인하여, 종교적인 생활조직을 새롭게 재조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독교의 발전으로 유대교에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로마의 통치자들은 유대인들을 꺾박하게 되었다(Steinsaltz, 2006, 49). ‘게마라’는 타나임 시대 이후의 아모라임 시대(Amoraim, A.D.200-500)에 약 300년 동안 아모라임들이 ‘미쉬나’에 대한 토론과 해석의 모든 기록들과 보고서들을 ‘게마라’(가르침)라는 이름으로 ‘아모라임’(Amoraim: 현자들)이 토론하고 해석한 내용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Encyclopedia Judaica, 1972, 368-369). 이러한 탈무드는 4세기 경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편집된 ‘팔레스타인 탈무드’(Palestine Talmud, 혹은 예루살렘 탈무드)와 6세기경에 바벨론에서 편집된 ‘바벨론 탈무드’(Babylon Talmud)가 있다. 탈무드 텍스트의 내용은 크게 여섯 개의 ‘세데르’(seder)로 구성되어 있다. ‘세데르’는 ‘순서’라는 뜻으로 하나의 ‘세데르’에는 ‘마세케트’(Masechet)라 불리는 6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Steinsaltz, 2006, 109-113).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라임(Zeraim, 씨앗)은 11편(74장)의 ‘마세케트’(Masechet)로, 둘째, 모에드(Moed, 절기)는 12편(88장)의 ‘마세케트’(Masechet)로, 셋째, 나שמ(Nashim, 여성)은 7편(71장)의 ‘마세케트’(Masechet)로, 넷째, 네찌킨(Neziqin, 피해)은 10편(73장)의 ‘마세케트’(Masechet)로, 다섯째, 코다שמ(Kodashim, 거룩)은 11편(91장)의 ‘마세케트’(Masechet)로, 여섯째, 토호로트(Teharoth, 정결)는 12편(126장)의 ‘마세케트’(Masechet)로 구성되어 있다(Neusner, 1984, 28-29).

이러한 탈무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토라(모세 5경)’로서 서면으로 되어있는 책이다. 토라는 모세가 직접 쓴 책으로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천 년 동안 떠돌아 다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자유롭지 않았고, 스승을 찾거나 모실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승 없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이다(Ariel • 김진자, 2014, 56). 수백 년 동안 미쉬나(구전 토라)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함으로써 시대가 변해도 그 상황에 맞는 삶의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이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 • 민간전승 • 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로서 유산이다(Ariel • 김진자, 2014, 57).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유대력(유대교 달력)으로 7년 사이클로 같은 날 똑같은 내용을 매일 한 장씩 꾸준히 학습하고 있다. 탈무드의 한 페이지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중간에 미쉬나가 있고 양 옆에는 주석(해설)이 있는데 이것은 80년 동안 쓰여진 것이다. 오른 쪽에는 라쉬가 쓴 내용이고, 왼쪽에는 그의 손자가 쓴 내용이다. 탈무드의 각 페이지 구성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한

눈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뇌가 집중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Ariel • 김진자, 2014, 58).

2. 토라 해석의 지침과 가르치기 위한 지침

1) 토라 해석의 지침

유대인들은 토라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현시켜 왔다. 랍비 이슈마엘은 토라는 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원칙을 통해서 토라의 의미와 방향과 틀을 갖추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이 원칙들을 통해서 매일 읽어야 할 토라를 연구한다. 랍비 메이르와 랍비 게르손은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토라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Katz & Schwartz, 2008, 392-395).

<표 1> 토라를 연구하기 위한 지침

-
1. 먼저 배워야 한다.
 2. 도구가 필요하다.
 3. 질문을 해야 한다.
 4. 문맥을 알아야 한다.
 5. 텍스트가 자세히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토라가 자세히 말한다고 그 속에서 헤매지 말라.
 7. 토라에 빠져있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8. 토라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9. 다른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10. 바른 해답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1. 토라를 철저히 해야 한다.
 12. 토라가 우리에게 도전하게 해야 한다.
 13. 토라를 오늘의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
-

2) 토라를 가르치기 위한 지침

유대인들은 토라를 올바르게 학습하여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토라를 가르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애니 벨포드(Annie Belford, 2003)는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 미쉬나, 미드라쉬 등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용 지침을 만들었다.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Annie Belford, 2003, vii-ix). 첫째, 이 지침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모형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주기 위해 만들었다. 이

것은 학생들이 교재(text)를 단순히 읽기(reading)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내용을 토론(discussing)하는 것이다. 둘째, 이 지침은 각 교과들을 role-playing game, 현대영화, 토론, 교실 방문, 발표, 방문자들, 미술프로젝트, 전통적이면서 현재의 유대인 교재들 그리고 교실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이 지침은 각 장(chapter)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유의한 활동들의 선택(option)들을 제시하였다. 처음 일주일, 교재(text)의 내용이 매우 많아서, 전체 시간 내내 교재에 대해 서로 말하기만 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롤 플레이, 게임이나 미술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유대인 가치덕목(value)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일 년에 약간의 학급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을 요점을 말하는 토론으로 이끌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지침에 따르는 수업의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Belford, 2003, vii-ix)

<표 2> 토라 수업의 절차

1. 교재내용을 이해하는 단계(Understanding the Text)이다.
2. 각 장의 목표들(Objectives)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3. 도입 단계(Opening Activity)이다.
4. 전개 단계(Introducing the Text)이다.
5. 하브루타 학습(Chevruta Study)의 단계이다.
6. 집단 토론(Group Understanding)의 단계이다.
7. 교재를 넘어서서 다양한 학급활동(Beyond the Text: Class Activities) 단계이다.
8. 끝맺음 활동(Closing Activity: 학습종료) 단계이다.
9. 추가 자료들의 제시 단계이다.

3. 토라의 교육 방법

유대인들의 토라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방법 두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토라의 교육방법: 유대인들의 선조 어록

유대인들의 토라인 탈무드 네찌킨의 선조 어록(Pirkei Abot)은 모세가 랍비들에게 전수한 윤리적 가르침과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선조 어록(Pirkei Abot) 1장 1절”에는 토라의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조철수 역, 2005, 26-27).

“모세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했으며,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예

인자들에게, 예언자들은 대의회 의원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 한다. 첫째, 판단을 내리는데 숙고하여라. 둘째, 제자들을 많이 세워라. 셋째, 토라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라고 설명하고 있다(Pirkei Abot 1:1).

이 세 가지 명령은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라’고 요약할 수 있다. 판단을 하기 전에 잘 조사하고, 다른 경우를 배워서 결정을 신중히 하고, 많은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스승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정통과 유대교의 지침이다. 토라에 울타리를 쳐라는 말은 토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이므로 귀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Pirkei Abot 1장 1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먼저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라”는 말의 의미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토라를 연구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토라의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2) 하나님의 교육방법: 욥기 28:27

유대인 랍비들은 욥기 28:27을 통해 하나님의 교육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Katz & Schwartz, 2008, 415-416).

“그리고 그분은 토라를 바라보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탐구하셨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말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떤 본문이나 아가다나 미드라쉬를 가르치기 전에 “누구든지 모범을 통해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가르치면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모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이라고 랍비는 다시 설명을 더 추가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그분은 토라를 이스라엘에게 발표하기 전에 네 번씩이나 속으로 되뇌시고 그리고 한번 가르쳤다고 한다. ‘그분은 그것을 바라보고 따져보고 준비하고 탐구하셨다(욥기 28:27)’. 이렇게 하신 후에 비로소 ‘그분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욥기 28:28).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모든 말을 하셨다’(출애굽기 20:1). 그리고 그런 뒤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 하셨다...”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욥기 28장 27절의 교육방법은 하나님의 교육방식으로,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번이나 토라를 살펴보고, 한번 가르친 것처럼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하브루타의 교육방법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하브루타 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 하브루타 교육모형을 하브루타 교육 목적, 하브루타 교육의 내용, 하브루타의 교수-학습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하브루타의 개념

하브루타(havruta)는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상호 우정과 동반자의 관계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토라를 학습하는 방법이다. 하브루타는 아람어 ‘하베르(haver)’에서 유래되었으며, 동반자 또는 친구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하브루타 친구는 “서로 효율적으로 가르쳐주거나 배우는 관계,”로서 서로가 배울 수 있고,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관계이다. 또한 신세를 지거나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주는 관계를 의미한다(황병준, 김지숙, 2018, 213-214). 하브루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대인 학자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Elie Holzer와 Orit Kent는 하브루타를 “파트너와 함께 학습하고자 하는 본문 텍스트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Holzer & Kent, 2018, 15). Orit Kent는 하브루타를 “학습의 한 형태로서 쌍으로 하는 유대인 텍스트 학습을 성인 유대인 학습, 주간 학교 및 보충 학교 환경, 힐렐 모임 및 유대인 전문 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많은 현대적 상황에 적합한 학습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Kent, 2010, 215). Hezki Arieli와 김진자는 하브루타를 “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2인 토론 학습법”으로서 “1:1 대화를 통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방법”이라고 하면서 “나이 학력 직책에 관계 없이 서로 배울 수 있는 효과적인 토론식 교육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Arieli & 김진자, 2015, 55). 유대교 랍비 Aaron Parry는 하브루타는 “탈무드를 연구할 때 둘이 한 조가 되어 일정 본문(text)을 분석, 대화, 논쟁을 하고, 학생들은 지식과 이해력이 비슷한 학습 파트너가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하는 것으로, 예시바 밖이나 직장, 가정 혹은 야영장에서도 짝을 지어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Parry, 2017, 497). Michael Shire와 Robert W. Pazmiño는 하브루타 학습 방법을 협동학습의 한 형태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김영래, 2021, 285).

첫째, 학습 파트너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주석(exegesis)과 해석(esogesis)을 함으로써 본문(text)에 대해 공유한다. 둘째, 학습 파트너는 동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서로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사유한다. 셋째, 본문(text)를 세밀하게 독서하고 질문하고, 체계적인 토론의 기회와 쟁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하브루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하브루타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난예는 하브루타를 “학습하는 짝과 친구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며 함께 공부해 나가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김난예, 2015, 174-175). 황

병준과 김지숙은 하브루타를 “짜을 지어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황병준, 김지숙, 2018, 213). 박진경은 하브루타는 “일방향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주어진 텍스트를 기초로 2명의 학습자가 학습파트너가 되어 함께 질문과 토론, 논쟁의 과정을 통해 상호 관계적으로 학습하는 교육방법”이라고 하였다(박진경, 2020, 536). 박종신은 하브루타를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의 빛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박종신, 2017, 17). 전성수와 이익열은 하브루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과정이고 말씀을 실천 해내는 방법을 찾는 과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전성수 · 이익열, 2016, 10). 하브루타는 전통적인 유대인 학습기관인 ‘예시바’에서는 4세기와 5세기경에 편집된 랍비 율법과 전통의 기초 문헌인 탈무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활용한다고 하였다(Kent & Cook, 2014, 507).

지금까지 분석한 하브루타의 정의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브루타는 “유대교 경전을 사전에 완전히 학습하여,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학습 파트너를 구성하여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협동학습의 과정을 통해 유대인의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교의 윤리적 가치관은 탈무드(Talmud) 네찌킨(Nezikin) 피르케이 아보트(Pirhei Avot, 선조들의 어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유지훈, 2017, 9-12).

첫째, 친절을 베풀어라. 둘째, 이웃을 존중하라. 셋째, 신을 경외하라. 넷째, 화평을 도모하라. 다섯째, 죄를 피하라. 여섯째, 겸손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일곱째, 토라 연구와 일을 병행하라. 여덟째, 말을 조심하라.

2. 하브루타 교육모형

하브루타 교육모형을 하브루타 교육 목적, 하브루타 교육의 내용, 하브루타의 교수-학습 과정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브루타 교육 목적

하브루타 교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교 경전을 학습하는 방법인 질문, 토론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유대인의 가치관을 형성하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브루타 학습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목적은 유대교 경전을 암기를 통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뇌를 자극해서 사고력을 높이는 안목과 통찰력,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전성수·고현

승, 2015, 8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즐거움(Joy), 경청 능력(Listening), 집중력(Concentration), 논리력(Logic), 창의력(Creativity), 발표력(Presen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등의 능력이 필요하다(Arieli & 김진자, 2015, 142-150). 첫째, 학습의 즐거움은 질문과 대답, 토론의 과정에서 지루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것을 뇌가 생각해 주는 능력을 체험하면서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둘째, 경청 능력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서 나와 어떤 생각이 다르고, 그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을 해야 한다. 셋째, 집중력은 인간의 뇌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집중력이 올라간다. 어려운 문제, 상황에 대해 두뇌는 더 집중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 넷째, 논리력은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른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밑바탕이 필요하다. 다섯째, 창의력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 올리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인간의 상상력, 창의력은 무한히 잠재되어 있다. 이 잠재하고 있는 창의력은 하브루타를 통해 개발될 수 있고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섯째, 발표력은 하브루타는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이야기 하고 나면 반드시 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

따라서 하브루타의 교육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하브루타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 파트너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하브루타 러닝의 학습과정을 통해서 학습의 즐거움, 경청의 능력, 집중력, 논리력, 창의력, 발표력,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

2) 하브루타 교육 내용

유대인들이 하브루타 학습을 통해서 학습하는 교육 내용은 유대교 경전인 토라(Torah)와 탈무드(Talmud)의 텍스트이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토라(Torah)이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받은 ‘토라’는 분량은 적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으로 말로는 쉽지만, 그 깊은 내용과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유대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을 수천 년 동안 떠돌아 다니면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스승을 찾거나 모실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승 없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다(Ariel • 김진자, 2014, 56).

이러한 상황에서 토라(구전 토라) 텍스트의 내용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함으로써 시대가 변해도 그 상황에 맞는 삶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 온 것이다. 이 텍스트의 내용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으로서, 63개의 장(Tractate 혹은 Massekhtot)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제라임(Zeraim, 씨앗) 텍스트의 내용은 쉼과 교육, 예배와 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정, 이종교배금지에 대한 규정, 안식년에 관한 규정, 십일조에 대한 규정, 첫 결실에 대한 규정 등이다. 둘째, 모에드(Moed, 절기)는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각 절기마다 축제의 노래와 식사를 통해서 각 절기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에는 회당예배에 참여하여 자녀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셋째, 나쉬(Nashim, 여성)은 결혼 생활에 대한 방법과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혼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네찌킨(Neziqin, 피해)은 민, 형사상의 손해와 그에 대한 배상과 그리고, 재판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었다. 다섯째, 코다쉬(Kodashim, 거룩)은 하나님께 동물제사를 드릴지라도 안식일에는 짐승들일지라도 쉬게 하라고 하였고,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칠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도록 하는 규정, 고기와 우유는 함께 먹지 말라는 규정,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성전 밖에서 드리거나 제물을 잡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흠이 있는 동물을 바치거나 도살하거나 피를 뿌리거나 내장을 태워서도 안 되고, 제사를 위해 성별된 동물에 흠을 내는 것들도 금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여섯째, 토호로트(Teharoth, 정결)는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대처 방법 등으로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텍스트를 통한 생활 지침들을 다루고 있다(옥장흠, 2012, 37-53).

3) 하브루타의 교수-학습 과정

(1) 하브루타의 학습의 원리

하브루타의 원리를 Kent는 다음 3단계를 통한 6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Kent, 2010, 219-224).

① 경청(listening)과 재확인(articulating)의 단계이다.

먼저, 경청과 재확인의 단계는 하브루타를 시작하는 단계로서, 두 사람이 찬성과 반대 관점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다(Ariel · 김진자, 2014, 75). 경청을 잘하는 방법은 첫째, 상대방의 말에 능동적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의 말이 자신에게 도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셋

째, 상대방에게 배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 넷째, 상대방의 나이, 성별,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Ariel · 김진자, 2014, 75-77). 다음으로 재확인 단계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재확인 단계에서는 학습파트너를 자신의 생각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자신이 생각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넓게 확장시키기 위해 재확인을 하는 것이다(정선영, 2013, 111).

따라서 경청과 재확인 단계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과 학습파트너의 생각을 확장 ·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② 반문(wondering)과 집중(focusing)하는 단계이다.

반문과 집중 단계에서는 주의를 집중하고 대안들에 대해 탐색하여 방향을 결정짓는다. 먼저, 반문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의 관점이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면서, 질문하고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시 질문하는 과정이다(황병준 · 김지숙, 2018, 215). 다음으로 집중하는 것은 본문(텍스트), 본인 관점, 상대방의 의견에 주의를 집중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이나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이다(박진경, 2020, 538).

따라서 반문과 집중 단계는 본문(텍스트)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③ 지지(supporting)와 도전(challenging)하는 단계이다.

지지와 도전 단계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 주장의 모순, 한계점들을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지하는 것은 상대방이 본문(텍스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함으로써, 생각을 명료화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도전은 상대방이 모순적이거나 대립된 관점이 없는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김난예, 2015, 179).

따라서 지지와 도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주장을 격려함으로써 대화의 방향을 조정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명료화시키고, 강화시키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전성수는 하브루타의 수업유형을 질문 중심 하브루타, 논쟁 중심 하브루타, 비교 중심 하브루타,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질문 만들기 하브루타로 제시하였으며, 수업유형에 따른 수업 절차들을 제시하였다(전성수, 2015, 256-287). 김난예는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로 진술(statement),

질문(question), 대답(answer), 반박(contradiction), 증거(proof), 해결(resolution) 등으로 제시하였다(김난예, 2015, 179-180). 다음으로 Hezki Arieli는 하브루타 수업의 절차를 주제 이해, 하브루타 실시, 상호 피드백의 순서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rieli · 김진자, 2014, 116-128).

① 주제 이해

주제 이해의 과정은 하브루타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제 선정, 주제 읽기, 주제 이해의 절차를 거친다. 먼저, 주제의 선정은 탈무드 텍스트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찬반의견이 나올 수 있는 의견을 주제로 선정한다. 특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도록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주제 읽기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읽는데, 이는 글자 하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주제에서 단어와 문장의 의미, 상황이나 사건 등을 다양한 상황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제 이해하기는 두 사람이 주제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공유하여 얼마만큼 주제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서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한다.

② 하브루타의 실시

하브루타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2인 1조로 구성하고, 주제에 대해서 먼저,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시한다. 반론을 제시할 때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허점, 부족한 점, 그리고 오류가 있는지 상세하게 밝힌다.

③ 상호 피드백

상호 피드백의 단계는 하브루타 실시 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이다. 먼저 하브루타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한다. 다음으로 창의적인 해결을 위해서 찬성과 반대의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요소를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조와 더불어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학습한다.

IV. 하부루타 교육방법의 기독교교육 적용방안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독서와 암송을 통

한 교육,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창의성 개발을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독서와 암송을 통한 교육

유대인들은 “책을 읽는 자식은 빠뜨어지지 않으며, 독서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을 통해 지적인 성장과 인격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교육을 통해 관심 분야나 개인의 특성, 재능을 개발하고, 올바르게 성장과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독서교육을 통해 지(知), 정(情), 의(意)의 전인적 인격과 실제적 생활 방법을 배우게 된다. 정통파 유대인들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5세가 되면, 토라학교에 입학하여 토라를 암기하기 시작하고, 10세까지 토라를 완전히 암기 한다. 토라를 완전히 암기한 이후에는 탈무드 학교인 bet talmud(탈무드 학습의 집)에 입학하여, 토라 학습의 방법으로 질문과 토론을 하는 하브루타 학습방법으로 학습한다. 13세가 되면 bet midrash(연구의 집)에 입학하게 되는 데, 극소수의 뛰어난 학생들만이 진학할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토라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사들에게 배운다. 특별히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와의 관계를 배우고, 탐구하는 방법과 토론하는 방법을 학습한다(김영래, 2021, 284-286).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를 학습하기 전에 뇌 활동의 준비 단계로서 ‘기억하기 연습’을 한다(Arieli · 김진자, 2014, 113). 이는 하브루타를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라를 완전히 암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브루타 학습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토라가 명령한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토라의 각 텍스트를 완전히 학습해야 만이 그 율법에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를 반드시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는 사실상 성경 암송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성경 통독이나 단편적인 요절을 암송하는 것을 권장해 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어린 시절부터 토라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암송하고 이해하려는 모습과 달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암송하거나 이해하려는 측면은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한 모습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유대인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브루타 학습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성경을 읽어내는 독서의 방법으로 거룩한 독서(렉티오 디비나, Lectio Divina)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거룩한 독서는 일종의 성경읽기를 통하여 신앙의 내면화와 실천을 일치시키려는 성서 교육이다, 이금만은 기도 및 대화를 특성으로 하는 거룩한 독서와 체계적이

고 면밀한 독서를 특성으로 하는 성서기호학을 상호 연결하는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법의 절차는 시작 기도, 본문 독서, 본문 묵상, 묵상 나눔, 마침 기도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절차를 통한 단계는 순차적으로 구성되어있지만, 실제 독서할 때는 서로 어우러져, 독서와 묵상은 하나로 묶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하브루타를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성경 암기는 Parker Palmer의 교육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찍이 Palmer는 진리에 대한 순종의 실천 형태로서 암기교육을 강조하였다. Palmer는 암기를 통해서 제3자들을 현재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시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 그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억한 것을 교실의 대화의 장으로 초대하여 제3자의 현존을 회복하고 진리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 다른 길을 발견한다(Palmer, 2006, 213)고 하였다.

2.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유대인들의 토라를 학습하기 위한 하브루타(Havruta) 학습 방법과 유사한 교육 방법으로 협동학습이 있다. 이 하브루타를 우리 말로 번역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브루타 학습 방법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토라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해 왔던 교육 방법으로 반드시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져야만 하지만, 학습자가 홀수이면, 한 집단을 3명으로 구성한다. 하브루타 학습집단이 구성이 되면, 각 텍스트의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토론을 한다. 이 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제시된 주제(topic)에 맞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습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 이 학습방법이 유대인들이 토라를 학습하기 위한 교육 방법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하브루타 학습 방법과 현대 교수 방법인 협동학습 방법을 통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협동학습의 개념과 원리, 효과를 살펴보고 기독교 교육에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협동학습은 학습 집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료들과 더불어 학습하는 구조화된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다. 즉, 4~6명으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교사가 학습목표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학습자들은 과제 특성에 따라 학습한다(전성연 외, 2007, 14-15). 슬래빈(Slavin)은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로서 집단 보상, 개별 책무성, 성공 기회의 균등을 제시하고 있다(전성연 외, 2007, 17). 첫째, 집단 보상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기 때문에 집단의 성공을 위해 구성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별 책무성은 자신이 소속한 집단의 성공을 위해 구성원 각자가 학습의 성취에 대한 책임을 짐으로 집단에 기여하는 것이다. 셋째, 성공 기회의 균등이란 학습자들이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전의 학습결과

와 비해 향상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협동학습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협동 학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전성연 외, 2007, 23-26). 첫째, 협동학습은 인지적 및 정의적 효과가 있다. 이는 협동적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와 정의적 영역인 학습동기, 자아존중감, 학습태도, 대인관계, 정신건강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협동학습은 집단보상과 개별책무성이 구조화 될 때 학업성취에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학습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효과적이다.

따라서 하브루타 학습 방법과 협동학습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하브루타 학습방법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한다면 2-3명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습 목표를 서로 협동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2-3명의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는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활용하여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전의 상태와는 다른 학습효과를 얻도록 한다.

3.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PBL)

문제 중심 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다. 실제 맥락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소집단의 협동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 협동학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율적 학습능력 등을 학습해 나가는 것이다(변영계 외, 2007, 178). 문제 중심 학습의 특징은 첫째, 문제 중심 학습에서의 문제는 학습자가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다. 둘째, 문제 중심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학습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 셋째, 문제 중심 학습은 개인적인 노력보다는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변영계 외, 2007, 178-179). 문제 중심 학습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박숙희 외, 2007, 134-136). 첫째, 문제 만나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통해서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필요성을 문제 맥락 속에서 지속시키는 것이다. 둘째, 문제해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문제 중심 학습은 이미 학습한 지식만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셋째, 탐색 및 재탐색을 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탐색해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탐색의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넷째, 해결책을 고안해야 한다.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낸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발표와 평가해야 한다.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해결책을 서로 공유하고 평가를 위한 마무리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브루타 학습 방법과 문제중심학습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사태에 대해 ‘이름 짓기(naming)’를 시도한다. 둘째, 설정된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토론하면서 관리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한다. 셋째, 개인적인 관점의 문제해결보다는 상호협동, 공동체적 관점의 신앙적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4.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

유대인들은 토라의 텍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는다. 이 질문과 대답의 과정에서 하나의 주제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로의 관점에 대한 주장과 반론을 펼쳐나간다. 특히, 토라 텍스트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가능하도록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을 시킨다(Neusner, 1979, 118-124).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그 절기의 기원과 상징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질문을 자극하여 자녀들이 질문을 하도록 한다. 유월절에는 세더(Seder)라는 의식과 식사를 하고, 네 가지 질문을 한다(Neusner, 1974, 125). 첫째, 왜 유월절 밤에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가? 둘째, 왜 쓴 나물을 먹어야 하는가? 셋째, 일반적인 날에는 나물을 한번 담그는데, 유월절 밤은 두 번 담그는가? 넷째, 일반적인 날에는 앉거나 기대에서 먹는데 오늘은 왜 기대서 먹는가? 등을 질문한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질문과 대답을 통한 토론식 교육을 하고 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는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이러한 질문들이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인 훈련과 건전한 합리적 사고와 습관을 가진 인간을 길러낸다.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토라가 제시하는 것을 기반으로 잘못을 바로 잡아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과 대답을 통한 토론이 발전하여 만들어진 것이 탈무드식 논쟁법(The Talmudic Debate)이다. 이 방법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마주보면서 탈무드 텍스트를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 논의하고 서로의 관점에 대해 반박(Debate)을 한다. 이때 상대방이 허점을 보이면 날카롭게 질문하고 공격을 하여 상대방을 곤경에 빠지게도 한다. 토론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언쟁을 높이고, 서로 싸우듯이 한다. 이처럼 따질 때는 분명히 따지

지만 절제가 필요라는 경우에는 절제하기 때문에 토론이 끝나면 서로 다정해 진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토라(탈무드)를 학습하기 위해 하브루타의 토론식 교육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해야 한다. 토론을 위한 교육방법은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집단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학습자의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개방된 사고와 태도를 길러낼 수 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조규락 외, 2006, 263-268). 토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의 주제는 학습자들에게 의미있는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발언하는 기회는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토론 주제는 사전에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성실하게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브루타 토론식 교육방법을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가 성경이나 교리를 일방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방향적 학습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유대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하브루타 학습방법을 실천하려면, 토론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교사는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주도자가 아니라 학습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는 교사들이 전달하는 학습 내용을 가만히 듣는 청취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한국교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활동의 접근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5.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창의성 개발을 교육

전 세계는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창의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성은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특성이다. 창의성이란 한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작품을 창출해 내거나,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디어나 작품을 참신하게 재창출 해내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허승희 외, 2016, 173).

유대인들은 토라를 학습하는 하브루타 학습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창의성을 유발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토라의 텍스트를 선정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다른 주제로 끊임없이 확장, 재확장을 거듭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다. 이스라

엘 정부는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수월성 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학교에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도록 격려해 준다(류태영·정호진, 2008, 427-464).

<표 3> 수월성 교육을 위한 질문

-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 나는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까?
- 나는 어떠한 포괄적 사고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나는 어떻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사들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력을 높이고, 재능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교사의 역할은 창의성이 개발되도록 지속적인 동기유발이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 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재 아동을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유대인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하브루타 학습 방법을 기독교교육에 적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까지 그 범위가 확장된다. 신약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교사와 학습자가 기대하는 큰 특징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약은 물론 신약성경에도 귀를 기울이며, 토론하고, 해석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토론하면서 마지막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 주시길 기대하는 것이다.

V. 나가는 말

유대교 하브루타 학습 방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방법으로, 학습 파트너와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의 즐거움, 경청의 능력, 집중력, 논리력, 창의력, 발표력, 의사소통 등의 능력을 길러낼 수 있다. 그러므로 21세기

기독교 교육방법의 대안으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삶의 지침으로 토라를 학습하기 위한 교육 방법인 하브루타를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삶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하브루타 교육의 배경을 분석하였다. 둘째, 하브루타 교육 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하브루타 교육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하브루타 교육의 배경을 토라 해석의 지침과 가르치기 위한 지침, 토라교육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하브루타 교육의 개념, 하브루타 교육모형을 하브루타 교육 목적, 하브루타 교육의 내용, 하브루타의 교수-학습 과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교육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교육방법을 독서와 암송을 통한 교육,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창의성 개발을 교육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와 암송을 통한 교육방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독서와 암송을 통한 교육은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신앙의 내면화와 실천하는 성서교육과 Palmer가 지적하였듯이 성서의 암기를 통해서 제3자들을 현재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시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 둘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으로 적용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협동학습은 유대인들의 하브루타 학습 방법과 협동학습 방법을 통합하여, 학습 집단을 조직하고, 각 학습 집단이 주어진 텍스트의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신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문제를 신앙적 관점에서 토론하면서 관리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협동, 공동체적 관점의 신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넷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토론 학습은 하나의 주제를 설정하여 개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집단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자의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개방된 사고와 태도를 길러낼 수 있다. 다섯째,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창의성 개발 교육은 하브루타 학습 방법과 같이 텍스트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다른 주제로 끊임없이 확장, 재확장을 거듭하면서 그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난예 (2015). 질문생성 전략과 하브루타 신앙공동체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3, 169-198.
- [Kim, N. Y. (2015). Question Generation Strategy and Havruta Faith Community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3, 169-198.]
- 김영래 (2021). 성경 시대 학습 방법과 기독교교육: 암기와 하브루타, *신학과 세계*, 101, 279-308.
- [Kim, Y. L. (2021). Learning Methods of the Biblical Times and Christian Education: Memorization and Havruta, *Theology and the World*, 101, 279-308.]
- 김정준 (2024).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78, 21-55.
- [Kim, J. J. (2024). After the COVID-19 Pandemic, New Tasks and Direction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8, 21-55.]
- 박진경 (2020). 기독교 대학 종교교육에서의 하브루타 적용 연구: 관계적 접근, *신학과 실천*, 71, 529-552.
- [Park, J. K. (2020).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Havruta in Religious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y: A Relational Approach, *Theology and the World*, 71, 529-552.]
- 박종신 (2017). *하브루타*, 인천: 성경암송학교(BRS).
- [Park J. S. (2017). *Havruta*, Incheon: BRS.]
- 변영계·김영환·손미 (2007).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Byun, Y. G., Kim, Y. H., Son, M. (2007),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Technology*, Seoul: Hakjisa.]
- 옥장흠 (2014). *탈무드를 보다*,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 [Ok, J. H. (2014). *See The Talmud*, Osan: Hanshin University Press.
- 류태영·정호진 (2008), “남과 다른 사람을 만드는 이스라엘교육”, *세계의 수월성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427-464.
- [Ryu, T. Y. & Jeong, H. J. (2008). Israeli education that makes people different from others, *World Efficiency Education*, Seoul: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427-464.
- 유지훈 역 (2017). *탈무드 피рке이 아보트*. 수원: 투나미스.
- [You, J. H. Translation (2017). *Pirkei Avot*, Suwon: Tunamis.]
- 윤응진 (2000). *비판적 기독교교육론*. 서울: 다산글방.
- [Yun, E. J. (2000). *Critical Christianity educational theory*, Seoul: Dasan Geung Bang.]
- 윤응진 (2010). *기독교 교육신학 II*. 서울: 한교.
- [Yun, E. J. (2010). *Christian Education Theology II*, Seoul: Kidok Hankyo.]
- 이금만 (2007), 성서기호학과 거룩한 독서를 접목한 통전적 성서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5, 25-60.
- [Lee, G. M. (2007). A Study on Emerging of Biblical Semiotics and Lectio Divin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5, 25-60.]
- 전성수·이익열 (2016), *교회 하브루타*, 서울: 두란노서원.
- [Jeon, S. S. & Lee I. Y. (2016). *Church Havruta*, Seoul: Duranno Seowon.]
- 전성수·고현승 (2015), *질문이 있는 교실*, 서울: 경향BP.
- [Jeon, S. S. & Go, H. S. (2015). *Classroom with Questions*, Seoul: Kyunghyang BP.]
- 전성수 (2015), *최고의 공부법*, 서울: 경향BP.
- [Jeon, S. S. (2015). *The best way to Study*, Seoul: Kyunghyang BP.]
- 전성연 (2007). *협동학습모형탐색*, 서울: 학지사.
- [Jeon, S. Y. (2007). *Exploring cooperative learning models*, Seoul: Hakjisa.]
- 정선영 (2013), *국가수준교육과정 국제 이스라엘 비교연구 II*, 서울: 교육부.

- [Jeong, S. Y. (2013). *National Level Curriculum International Israel Comparative Study*, Seoul: Ministry of Education.]
- 조규락 김선연 (2006).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263-268.
- [Cho, G. R. & Kim, S. Y. (2006), *Teaching Methods and Educational Technology*, Seoul: Hakjisa.]
- 조철수 (2002). **유대교와 예수**. 서울: 길.
- [Cho, C. S. (2002), *Judaism and Jesus*. Seoul: Gil.]
- 조철수 역주 (2005), **선조들의 어록**, 서울: 성서와 함께.
- [Translator Cho, C. S. (2008) *Aphorisms of our Ancestors*, Seoul: With the Bible.]
- 최중화 (2019). 미쉬나 소개: 오해와 편견을 넘어. **기독교사상**, 721, 126-139.
- [Choi J. H. (2019). Introduction of Mishnah: Beyond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Christian idea*, 721, 126-139.]
- 최창모 (1994). **이스라엘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Choi, C. M. (1984). *Israeli history*, Seoul: Korean textbooks.]
- 허승희, 이영만, 김정섭 (2016).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Heo, S. H., Lee, Y. M., Kim, J. S. (2016).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 황병준, 김지숙 (2018), 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한국적 하브루타 가정예배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4, 209-242.
- [Hwang, B. J. & Kim, J. S. (2018), A Study on Korean Worship Service of Havruta Using Jewish Havrut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4, 209-242.]
- Ariel, Hezki & 김진자 (2014),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 서울: 국제인재개발센터.
- [Ariel, Hezki & 김진자 (2014), *Talmud Havruta Learning*, Seoul: International Talent Development Center.]
- Belford, Annie (2003), *A Teacher's Guide to A Taste of Text*, New York: UAHC Press.
- Encyclopedia Judaica. (1972). Volume 7, Jerusalem: Keter.
- Elie, Holzer & Kent, Orit (2018). 이은혜 역. **하브루타란 무엇인가**, 오산: D6 Korea House. (원저 출판 2013년).
- [Elie, Holzer & Kent, Orit (2018), *A Philosophy of Havruta*, Osan: D6 Korea House.]
- Katz, Michael & Schwartz, Gershon. (2008), 이환진 역(2008), **모세오경 미드라쉬의 랍비들의 설교**, 고양: 한국기독교연구소. (원저 출판 2002년).
- [Katz, Michael & Schwartz, Gershon (2008). *Searching for Meaning in Midrash: Lessons for Everyday Living*, Goyang: Korea Christian Research Institute.
- Kent, Orit (2010),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76, 215-245.
- Kent, Orit & Cook, Allison (2014). Teachers As Learners and Practitioners: Shifting Teaching Practice through Havruta Pedagogy, *The official journal of the 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 109, 507-525.
- Neusner, Jacob (1973). *Learn mishnah*. Behrman House, Inc.
- Neusner, Jacob (1974), *The Life of Torah*,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Neusner, Jacob (1979), *The Way of Torah*,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Neusner, Jacob (1984). *Invitation to the talmud*.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 Rabbi Parry, Aaron, 김정환 역 (2017). **랍비가 직접 말하는 탈무드 하브루타**, 서울: 한국경제신문, (원저 출판 2003년).
- [Rabbi Parry, Aaron (2017). *The Complete Idiot's Guide to the Talmud*, Seoul: Korea Economic Daily.
- Palmer, Parker J. (2006). 이종태 옮김, **가르침과 배움의 형성**, 서울: IVP. (원저 출판 1993년)
- [Palmer, Parker J. (2006). *To Know As are known: Education As a Spiritual Journey*, Seoul: IVP.
- Steinsaltz, Adin (2006). *The Essential Talmud*, New York: Basic Books,